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미 물가 둔화...근원 인플레이 지수 2021년 이래 최저
- Bloomberg: 오늘 발표 물가 지표는 연준의 긍정적인 진일보 시사
- WSJ: 4월 미 소매 판매 기대 못 미쳐
- Bloomberg: 뉴욕주 제조활동지수 6개월 연속 위축
- WSJ: 미 은퇴자들, 물가 감당하느라 저축 빨리 고갈

#### [미국 금융]

- Bloomberg: 물가 및 소매 판매 둔화 발표로 미 국채가 상승
- Bloomberg: S&P 500도 최고치 기록... 물가 둔화로 연준 금리 인하 기대로

#### [물류]

- WSJ: 미 수입업체들, 미국의 중국 관세 인상에 비난

#### [부동산]

- CNBC: 이자율 감소 불구 주택 구입 모기지 수요는 오히려 감소

#### [오일]

- WSJ: IEA, 올해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 하향 조정

#### [전기차]

- WSJ: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 미국 외 다른 국가 시장 노린다
- Bloomberg: 미국, '멕시코산 중국 전기차' 경계한다

####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 부동산 시장 진작 위해 '미분양 주택 정부 매입' 검토

#### [인공지능]

- WSJ: 연방상원 그룹, AI에 수백억 달러 지출 권고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월마트 '미 최대 소매업체'로서의 입지 위태롭다
- Bloomberg: 넷플릭스, 스포츠 분야 진출 ... NFL 경기 중계권 계약 체결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Inflation Eases as Core Index Hits Lowest Level Since 2021

#### 미 물가 둔화...근원 인플레이 지수 2021년 이래 최저

- 4월 미 물가가 약간 둔화하여서 물가 압박이 지난 2021년 봄 이래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 연방 노동부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3.4% 올랐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연간 3.6%로 상승, 지난 2021년 4월 이래 상승폭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연준의 인플레이와의 싸움으로 경제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연준이 9월 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감소했고, 주식은 상승하고 있다.

## WSJ 기사

### **Bloomberg: US Inflation Data to Show Small Step in Right Direction for Fed**

#### **오늘 발표 물가 지표는 연준의 긍정적인 진일보 시사**

- 올 초부터 물가 압박이 3개월 연속 악화되더니 4월에는 물가 압력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연준의 2% 물가 목표제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투자자들과 연준은 일부 안도의 숨을 쉴 것으로 보인다.
- Santander US Capital Markets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Stephen Stanley는 “연준이 물가 회복을 기다리면서 금리 인하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4월 물가 보고서는 연준이 바른 방향을 가는데 진일보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 **WSJ: Retail Sales in April Miss Expectations**

#### **4월 미 소매 판매 기대 못 미쳐**

- 4월 미 소매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4월 미 소매 판매가 3월과 별 변동이 없었지만 0.4%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3월 소매 판매는 당초 0.7%에서 약간 하향 조정된 0.6%로 나타났다.
- 4월 소비가 줄어든 품목은 자동차, 가구 등 비싼 물품인데 반대로 식품과 가솔린은 지출이 늘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4월에 0.2%를 나타내 예상치에 부합했다. 4월 소매 판매 수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와 동시에 발표되었다.

## WSJ 기사

## Bloomberg: New York State Manufacturing Contracts for Sixth Straight Month

### 뉴욕주 제조활동지수 6개월 연속 위축

- 5월 뉴욕주 제조활동이 수요 약세로 인해 6개월째 위축되었다. 반면에 투입 물가와 판매 가격은 약간 둔화되었다.
- 뉴욕 연준의 일반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4월 들어 1.3포인트 줄어든 마이너스 15.6이다. 제로 아래면 위축인데 볼룸버그는 마이너스 10을 예상했었다.
- 한마디로 투입 비용이 올라가면서 미국 제조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뉴욕 연준의 관계자는 5월 제조 활동과 주문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다 노동 시장 여건도 고용 약세를 보이면서 위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한편 자재 가격 지수는 5.4 줄어든 28.3인 반면 뉴욕주 제조업체가 받는 가격은 2.8 떨어진 14.1이다.

Bloomberg 기사

## WSJ: Retirees Drain Savings Faster to Cope With Inflation

### 미 은퇴자들, 물가 감당하느라 저축 빨리 고갈

- 은퇴자들이 높은 물가를 감당하느라 저축액을 더 사용하고 있어 그들의 '등지 알'이 고갈될 리스크가 늘고 있다.
- 오늘 보스턴 컬리지 발표에 따르면 고물가가 현금과 고정 자산을 줄이기 때문에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이들에 지난 2021년 이래 물가 상승이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의 은퇴 대상 중간층 미국인의 재정 자산이 14.2% 줄었다는 것이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Treasuries Soar as CPI, Retail Sales Reports Boost Fed Cut Bets

### 물가 및 소매 판매 둔화 발표로 미 국채가 상승

- 오늘 발표된 물가 둔화와 소매 판매 둔화 소식에 투자자들이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올림에 따라 국채 가격이 크게 상승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 달 이상 사이에 최저치를 보였다.
- 수요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0 베이시스 감소한 4.35%를 기록 중이다. 2년물과 5년물로 8 베이시스 포인트 줄어들어 거래 중이다.

- 금리 스와프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 9월까지 0.25%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데 80%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S&P 500 Set for Record High as CPI Fuels Fed Bets S&P 500도 최고치 기록... 물가 둔화로 연준 금리 인하 기대로**

- 오늘 발표된 물가 둔화 소식으로 관련 연준이 빠르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하면서 월가 증시가 크게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 S&P 500은 전장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현재 5,270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물가 하락 조짐과 소매 판매 감소 현상이 올가을 연준의 금리 가능성을 올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7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75%를 기록중이다.

Bloomberg 기사

### **[물류]**

### **WSJ: Import Groups Decry Higher U.S. Tariffs on China-Made Goods 미 수입업체들, 미국의 중국 관세 인상에 비난**

-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과 업체들을 대변하는 무역 관련 단체들은 미국의 중국 관세 부과 인상이 공급망 비용을 악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을 비난했다.
- 대형 소매업체들의 대변하는 무역 단체인 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는 “전반적인 관세 부과는 전략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미국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고 고물가 상황에서 미 근로자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WSJ 기사

### **[부동산]**

### **CNBC: Mortgage demand from homebuyers drops even as interest rates pull back to April lows 이자율 감소 불구 주택 구입 모기지 수요는 오히려 감소**

- 지난주 주택 구입 모기지율은 4월 이래 가장 낮았지만 주택 구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모기지 수요가 상승하지 않고 있다.

- 전체 모기지 신청 규모는 전전주보다 단지 0.5% 상승했다고 모기지 은행 협회의 관련 지수는 밝혔다.
- 30년 고정 모기지는 7.18%에서 7.08%로 감소했다.

CNBC 기사

## [오일]

**WSJ: IEA Lowers 2024 Oil-Demand Growth Forecast on Slow Start of the Year****IEA, 올해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 하향 조정**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낮췄다. 산업활동의 침체와 온화한 겨울 기온으로 인해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가스유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월간 보고서를 통해, 석유 수요 증가폭이 이전의 하루 1백20만 배럴에서 현재 1백10만 배럴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총수요는 여전히 하루 평균 1억3천3백20만 배럴로 예상된다.
- 이러한 수정은 1분기 OECD 국가의 석유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하루 7만 배럴 감소하면서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결과이다. 특히 유럽의 휘발유 수요는 분기에 하루 14만 배럴 감소했으며, 유럽 내 디젤 차량 점유율이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WSJ 기사

## [전기차]

**WSJ: With America Off-Limits, China EV Makers Aim to Conquer Rest of World****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 미국 외 다른 국가 시장 노린다**

-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선언함에 따라,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이외의 세계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 화요일 워싱턴에서 발표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타격보다는, 상징적인 타격을 줄 뿐이다. 그들은 이미 미국에서 거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분석가들은 미국의 냉담한 태도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지배에 대한 야망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전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 회사들은 신흥 시장에 주력할 것이며, 가능한 경우 현지에서의 생산을 촉진하여 중국 전기차에 보다 개방적인 정부를 찾으려 할 것이다.

WSJ 기사

## Bloomberg: US Cites Threat of Chinese EVs Made in Mexico as Trade Concern

### 미국, '멕시코산 중국 전기차' 경계한다

-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시도를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의 최고 무역 협상가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 대상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Katherine Tai 무역대표부 대표는 화요일 멕시코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시장으로의 접근을 위해 새로운 공장이 설립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립하여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 [중국 경제]

## Bloomberg: China Considers Government Buying of Unsold Homes to Save Property Market

### 중국, 부동산 시장 진작 위해 '미분양 주택 정부 매입' 검토

-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전국 지방 정부가 수백만 채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여러 지방 및 정부 기관으로부터 예비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국가 자금을 투입하여 과잉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이번 계획은 그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지역 국영 기업이 국영 은행의 대출을 받아 개발업자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후 많은 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당국은 여전히 이 계획의 세부 사항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 중이며, 중국 지도자들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시행되는데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 [인공지능]

## WSJ: Senate Group Recommends Spending Tens of Billions of Dollars on AI

### 연방상원 그룹, AI에 수백억 달러 지출 권고

- 초당적 상원 그룹이 AI에 수백억 달러의 새로운 연방 지출을 권고했다. 이는 AI의 안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미국이 경쟁국,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이는 수요일 상원 원내대표 Chuck Schumer가 이끄는 'AI 워킹 그룹'이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제안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AI 정책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AI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상원의원들은 AI 혁신을 위한 연방 지출을 가능한 빨리 연간 3백2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권고했지만, 이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Walmart's Reign as America's Biggest Retailer Is Under Threat 월마트 '미 최대 소매업체'로서의 입지 위태롭다

- 지난 10년간 월마트는 매출 기준 미국 최대 기업으로 인정받아 왔다. 작년에는 매출이 총 6천4백80억 달러로, 분당 1백2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
- 그러나 최근에는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의 매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마존이 곧 월마트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아마존은 지난해 총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5천7백5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에 비해 월마트의 매출 성장률은 6%에 그쳤다.
- 월마트의 거대한 규모를 고려할 때, 매년 약 4% 성장이라는 자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가 매출로 약 2백60억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WSJ 기사

#### Bloomberg: Netflix Nears Deal for NFL Games, Extending Push Into Sports

##### 넷플릭스, 스포츠 분야 진출 ... NFL 경기 중계권 계약 체결

- 넷플릭스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두 개의 내셔널 풋볼 리그(NFL) 경기를 방영할 예정이다. 이는 스트리밍 TV 대기업인 넷플릭스가 최신 라이브 이벤트 산업으로 진출하는 첫 걸음이다.
-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풋볼 리그와 넷플릭스는 3시즌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과 2026년에도 최소 한 번의 크리스마스 경기를 방영할 예정이다.
-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Bela Bajaria는 “작년에 우리는 코미디, 리얼리티 TV, 스포츠 등에 걸친 다양한 팬덤을 활용하기 위해 라이브 이벤트

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 파월 의장 "美 인플레이 지표 다시 둔화할 것으로 기대"

### "둔화 확신 이전처럼 높지는 않아...4월 생산자물가는 혼재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예상 수준을 웃돌게 나타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 외국은행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말의 낮았던 수준으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첫 3개월간 (예상을 웃돈) 지표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전망에 대한 확신이 이전처럼 높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